

현대사회 현안 불교적 대안 모색

제1회 東亞 교수불자대회 요약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경남·동국대 법학과)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학기념관에서 한국·스리랑카·인도·태국·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국 교수불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공동체와 불교 △과학과 불교 △문화와 불교 △사회와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등 총 5개 분야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발표내용을 분석·요약했다.



◇동아시아 5개국 석학들이 21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분야별 발표자 및 논문 주제

분야	분야주제	논문제목	발표자
제1분야	공동체와 불교	중국내 탈북자 보호와 불교의 역할	이종중 서울대 교수
		화상사상과 불교해결 불교경제학의 가능성 불교와 현대경제윤리	장기문 강원대 교수 최정달 경성대 교수
제2분야	과학과 불교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불교적 고찰	곽만연 동아대 교수
		녹색불교와 생태환경정의구현 불교의 생명관 불교와 생명윤리	김용환 충북대 교수 이종호 전남대 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현남규 제주대 교수
제3분야	문화와 불교	일본국 다테야마시 타이간인의 한글비문 불교경전과 유언비어	장영길
		조현준 경북대 교수	
제4분야	사회와 불교	사회와 불교 생명윤리의 종교윤리적 접근 청소년비행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와 불교	고수원 김강대 교수 권대경 동국대 교수 김주현 강원대 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황찬원 한성대 교수 이희한 충북대 명예교수
		정보사회 및 인터넷의 윤리적 문제와 불교윤리	사회문제를 보는 불교적 시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회적 정책 평가 물의 위기와 붓다의 가르침
제5분야	종교문화와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佛敎의 생사관 미래의 종교문화 동향과 불교 동화와 한일 불교교회의 교섭	고영성 동국대 교수 김용수 동국대 교수 박영수 원광대 교수

기조발표

백경남 / 동국대 교수

21세기 세계의 주요 관심은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로 쏠리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는 세계의 생산과 투자, 금융, 물류, 정보기술, 문화가 모여들고 번영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상부구조 열쇠는 문화의 공통기반인 '불교의 자비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동북아의 정체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불교의 역사적인 역할 복원을 의미한다. 그 사상적 바탕은 원호 스님의 화쟁사상에 의한 상호소통과 이해 증진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동북아 불교인의 평화포럼 개최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동북아 불교문화콘텐츠 공동개발 기구 설치 △동북아 불교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제1분과

공동체와 불교

문명과 문화, 가치체계가 서로 다른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회피하고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또는 도덕틀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원호 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화쟁사상을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경험주의와 같이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불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교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의 탈북자 정착지원, 봉사, 후원 등을 통해 포교시장을 개척하는 등 불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공동체와 불교에 대한 논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

제2분과

과학과 불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윤리문제가 등장했다. 특히 인공지능, 나노 등 생명 경시풍조에 편승하고 있는 오늘날 윤리적 가치관은 우리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뇌사와 장기 이식문제는 불교의 자비와 보시의 윤리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 또 인공복제는 인류 미래에 있어서 더욱 큰 재앙의 업보로 이어질 것이다. 과학은 물질과 정신이 들어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진리 아래 행해질 때 '참 생명'을 위한 과학이 될 수 있다.

생태환경문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현대불교인들 다수가 호응하는 '녹색불교'는 자비의 위계질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모두 승자로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3분과

문화와 불교

한자나 범어로 된 불교 원전들을 오늘날의 언어와 문화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한다면 한국인이 읽을 수 있는 <한글 금강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태고종 역시 <고대 중국 한자어 음독>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다. 교를 거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려는 것은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찾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다.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은 한글다운 한글로 번역된 불교 경전을 읽을 권리가 있다. 불교화자들이나 스님들은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다운 한글 경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

제4분과

사회와 불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시각은 사회과학의 선행 사회문제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그 한계와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불교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의 재구성, 장·단점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 과학계의 사회문제 담론 속에 불교적 시각이 전무한 현실은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생명복제 등의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명윤리 문제에서부터, 청소년 비행 문제와 또래집단 연구,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터넷 윤리, 북한이탈주민 대책, 문명발달로 인한 수질오염, 물 부족 등에 대해 불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사상체계의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5분과

종교문화와 불교

미래의 종교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종교의 상업주의와 세속화, 현상 심화, 종교인구의 증가, 종교연합주나 종교간 대화 운동의 활발한 전개, 권위주의적 종교 퇴진과 인본주의적 종교문화 대두 등이다. 미래의 종교문화에서 불교의 역할과 가질 수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우선 첨단 과학의 발전을 위한 윤리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들 수 있다. 또 탈현대주의로 대변되는 현대문명 비판이론에 대해 생명과 자연주의적 사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상과 언어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이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 해방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연기사상은 사회의 불평등문제나 환경문제 해결에 윤리를 제안할 수 있다.

백담사= 김철우·이동혁 기자

왜 간화선인가 실상사서 선우논강

"현행 강원 교육으로는 4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스스로 자신의 수행법을 점검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불교관·수행관을 확립할 수 없어, 간화선 본래의 입각점과 창조성을 되살리기 어렵다."

8월 22일 실상사에서 열린 여덟 번째 선우논강 '왜 간화선인가'에서 원경 스님은 간화선의 문제점을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이같이 고찰했다. 간화선 수행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에 맞는 수행풍토를 정립시키기 위한 제8회 선우논강의 내용을 살펴본다.

간화선 뿌리·수행법 바른 이해 필요

'禪이 최고, 敎는 천박' 관념 바꿔야

발제 원경 스님 / 송광사 강원 학감



고려시대에 한반도로 전래되어 1천 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온 간화선은 문화적 정착성과 수행법의 단일성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간화선의 1700공안은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의 선문화(禪文化) 현상이 되어, 경전의 가르침에 맞서는 깨달음의 준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문화적 정착성으로 말미암아 간화선은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간화선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채 무조건 최고로 인식하는 현상은 다른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풍토를 만든다.

모든 의식이나 수행이 선과 관련되어 일관되게 행해지는 지에 대한 숙고 필요하다. 둘째, 간화선의 뿌리와 수행법 발달사를 바르게 이해한 후 수행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과 목의 한글 교재 보급과 다양한 학원 개설로 수행풍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여타 수행법과의 엄정한 비교연구를 통해 간화선법의 변별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넷째, 선(禪)이 최고이며 교(敎)는 천하다는 고정관념을 바꿔,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조계종이 본명 선종이라던 일체

동체대비 서원·윤리적 실천 일상생활속에 녹여 있어야

논평1

도법 스님 / 실상사 주지

간화선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간화선의 특징과 장점을 명확히 드러냄과 동시에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비관 비판을 '간화선 흔들기'로 규정하는 일부의 논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화선 전통의 문제점은 간화선주의의 편협성과 배타성, 교학적 이론에 대한 무지와 왜곡, 간화선 확립주의, 절대주의로 요약된다.

간화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선납자의 동체대비의 서원과 윤리적 실천이 실제 일상생활에 살아 있어야 한다. 또 간화선이 자유정신과 개방성·유연성이라는 불교의 일관된 가르침을 온전히 존중할 때 21C 구원의 수행론으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간화선修證正宗 수립 시급 선학교육 활성화도 바람직

논평2

월암 스님 / 칠불암 주지

오늘날 선원의 모습을 보면 눈 밝은 선지식의 교시가 아쉽고, 3~40년 동안 수선 안거한 선찰 납자는 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초참자들은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간화선 정신과 방법론에 의해 간화선주의의 편협성과 배타성, 교학적 이론에 대한 무지와 왜곡, 간화선 확립주의, 절대주의로 요약된다.

이로써 최상승의 선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선강원·선림원 등을 설립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선 수행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익히는 선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정리= 오유진 기자

제3기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그릇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정체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을 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 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 일 시: 2003년 9월 17일(수) ~ 11월 3일 (90시간)
- ◆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 사거리) ◆ 인 원: 30명(선착순)
- ◆ 문 의: 02-738-5586, 5568 / 상담소: 02)735-0406~7
- ◆ 수강료: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17일	1. 성·가정폭력법 해설 2. 가부장 제도와 여성인권	9월 18일	3. 가족주도와 가치변화 4. 한국 가족의 현주소
2.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			
9월 22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6. 가정폭력	9월 27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9월 27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9월 30일	9. 부부의 갈등 및 회피, 이혼가정상담
10월 2일	10. 여성적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10월 2일	10. 여성적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10월 10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10월 4일	14. 이혼의 실태와 재판문제
10월 10일	12.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문제	10월 11일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10월 11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10월 11일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료상담			
10월 18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10월 13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10월 20일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 실제	10월 28일	18. 진화 상담의 기법과 운영사례
10월 21일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10월 28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10월 27일	23. 경전에 나타난 상담	11월 1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10월 31일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11월 3일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심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회대외경제위원회 성광수

-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히트상품 선정
- ★ 스포츠 cut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더합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결!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매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매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에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매자 성광수씨가 재매인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5-7555